

곡성군, 취약계층 아동 성장·발달 지원 '눈길'

다문화이해교육 및 요리교실 영양 개선과 문화 이해 증진 맞춤형 안경 지원 14명 수혜 "기초학습 향상·정서함양 추진"

곡성군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실시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요리교실'과 '안경 지원사업'은 각각 참여 아동

들의 영양 개선과 다문화 이해 증진, 시력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신체, 정서 등 영역별로 아동발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성군은 2011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및 요리교실'은 곡성군가족센터와 연계해 7월 한 달 동안 주 2회 총 4회를 운영했으며, 19명의 드림아동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영양교육과 다문화 이해를 돕고, 요리 실습을 통해 오감을 자극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의 강사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소개하고 요리를 지도, 아동들의 편식 개선과 다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했다.

'안경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경 구매와 교체에 부담을 느끼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4명에게 맞춤 안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7월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드림건강검진 결과 시

력 저하가 확인된 아동들에게도 추가로 신청 기회를 제공했다. 2014년부터 지역 내 안경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온 결과, 작년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림 아동들의 건강증진, 기초학습 향상, 정서함양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재난 비상 2단계 발효 시 일시정지 화순 능주 파크골프장

화순군은 여름철 열사병 및 낙상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비상 2단계(호우주의보, 폭염경보) 발효 시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파크골프장 운영을 일시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다. 또한 아직은 수증기가 많은 시기여서 작은 기압골남하에도 집중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상황이다.

폭염 시 충분한 수분 섭취 및 휴식 없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폭우 시에도 바닥이 미끄러워 손목, 발목, 고관절 등의 부위에 염좌나 골절상 등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낙상 사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장성군, 딸기 재배 기회 제공 청년 농업인 대상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청년 스마트팜 인턴 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딸기작목 재배 △독립경영 3년 이하 △18세 이상 49세 이하 장성 거주자가 대상이다.

임차기간은 1년으로 임대료는 연 150만원이다. 선정된 임차인에게 시설하우스, 양액, 난방시설, 모종이 지원된다. 또 전문 지도사 상담을 통해 농업 전 과정에 걸친 경영 방법도 전수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61-390-8460)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임대 농장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나주시가 먹거리에 대한 이론과 간식 만들기 실습 중심의 '건강한 어린이 영양간식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건강한 어린이 영양간식 교육' 성료

나주시가 '건강한 어린이 영양간식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어린이를 둔 부모, 농업인, 소비자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주간 진행됐으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론과 간식 만들기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쌀·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및 소비 촉진과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강모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어서 더욱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나주의 식재료나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수업이 주기적으로 열리면 좋겠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관내 소비자분들과 어린이들에게 우리 쌀·밀을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알리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면서 "더 나아가 우리 쌀·밀에 대한 우수성을 바탕으로 쌀·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건강 맨발걷기 명소로 인기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이 최근 건강 맨발걷기 명소(슈퍼어싱길)로 떠오르고 있다.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돌머리 해수욕장은 길이 1km, 너비 70m로 광주시와도 가까워 근교 도시민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여기에 바닷길이 열리는 물때를 맞춰 방문하게 되면 약 600m의 슈퍼어싱길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

맨발걷기는 지면의 전자가 접지(earthing)효과로 인해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등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바닷가의 습윤한 지면이 일반 땅보다 접지 효과가 더 크다는 소식에 관광객들에게 바닷가 맨발걷기 인기가 더욱 높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맨발 걷기는 여름 개장 기간 이외에도 사계절 함평군에 방문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주요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슈퍼어싱길을 비롯해 청정 갯벌, 붉은 낙조, 시원한 해풍이 기다리는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정례 조회

담양군이 1일 군청 면양정실에서 공직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 조회에서는 담양군 공직자 동호회인 독서모임 '너독나독' 팀의 성과 발표와 2024년 상반기 베스트공무원 증서 시상,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 제 운영 평가 우수 공무원 시상을 진행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준비한 음주운전 근절 퍼포먼스를 통해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했으며 '군수님 금금해요!'라는 시간을 마련해 메모지에 적은 직원들의 무기명 질문에 군수가 직접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병노 군수는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7월 한 달간 각종 행사, 사업 추진 등 당면한 군정 업무에 열심히 임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와 공중화장실 위생 점검, 물놀이



담양군이 1일 군청 면양정실에서 공직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 담양군 제공

시설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불발더위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 홍보와 농업·축산·원예분야 장마 후속 조치 및 무더위 대응 종합대책 마련, 2024년 읍지연습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 군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 '농

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남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다 함께 열정적으로 일해준 덕분이다"라며, "최근 새롭게 문을 연 향촌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담양형 향촌돌봄정책이 전국적인 롤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영광군 '청년문화예술패스' 시행 1인당 15만원 선착순 지원

영광군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에게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전시 관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으로 영광군 대상자는 138명이며, 1인당 15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용을 지원한다. 선착순으로 발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발급 신청은 온라인 협력 예매처(인터넷파크, YES24)에서 가능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협력 예매처(인터넷파크, YES24 누리집) 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1577-19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